

“한국 와이즈멘 활동 세계가 인정...더 좋은 세계 건설 최선”

다음달 여수세계대회서 공식 취임 문상봉 국제와이즈멘 국제총재

세계적 봉사단체인 국제와이즈멘 세계대회가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린다. 세계 73개국 대표 300여명이 참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대회에서 지난해 2월 국제총재로 선출된 문상봉 초대 한국총재가 국제총재로 공식 취임한다. 문 총재는 그동안 지구촌 곳곳에서 수행한 봉사활동을 서로 격려하고, 친교와 우정을 나누며, 와이즈멘 정신을 공유·확산하는 친선 한마당으로 대회를 꾸려가고 있다. 이번 대회 콘셉트는 ‘문화’다. 봉사의 즐거움은 인문학이 곁들여져야 한다. 미국에서 태동한 와이즈멘은 기독교와 깊은 인연을 지니고 있지만 종교를 초월하는 봉사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도율 김용욱 선생 주재강연이다. 또 해민스님도 강사로 출연한다.

30일 여수에서 문 총재를 만나 국제와이즈멘 역할과 활동, 세계대회 개최 의미를 들어봤다.

—세계적 봉사단체인 국제와이즈멘 국제총재에 공식 취임한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국제총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의 활동 연료와 지도자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국제와이즈멘은 1922년 미국에서 창립, 100년 역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선진국을 비롯한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국제총재를 많이 배출했다. 이번에 국제총재에 취임하게 된 것은 한국와이즈멘의 활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다. 한국의 모든 회원들과 지도자들의 노력의 결과다. 임기 동안 세계 모든 와이즈멘과 함께 와이즈멘의 목적인 ‘더 좋은 세계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제총재의 위상과 역할은? 또 어떻게 이끌 계획인가?

▲국제총재는 세계 8개 지역총재들의 도움을 받아 전 세계 와이즈멘 조직을 통솔하고 지도한다. 모든 회원과 클럽이 와이즈멘의 목적·강령에 맞는 활동을 하고, 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임자다. 특히 오는 2022년이면 국제와이즈멘 창립 100주년이다. 와이즈멘 국제총재로서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펼쳤던 봉사활동을 재조명할 것이다. 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조직의 신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국제회의를 통해 새로운 봉사계획을 세우고, 더불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끌어내고자 한다.

—국제와이즈멘은 민간외교사절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가?

▲국제와이즈멘은 ‘모든 권리는 의무의 이행에서’라는 모토를 가지고 더 좋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세계 73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 봉사단체다. UN에 비정부기구로 등록돼 있다. 세계 모든 회원들이 함께 조성하는 국제봉사기금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아픔을 치유하고 있다. 재난과 사회환경 변화 등 국제적 현안문제를 봉사활동을 통해 해당 국가 주민과 함께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다.

—와이즈멘과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가?

▲소년시절 어려운 형편에서 성장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새겼다. 그러던 차에 1981년 고교 은사이신 김종문 선생의 권유로 여수한려클럽을 창립, 와이즈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클럽회장과 단계별 직책을 거쳐 2006년 광주·전남·제주를 관할하는 한국남부지구 총재, 2011년 초대 한국총재를 역임했다. 작년 2월 국제총재에 선출됐고, 이번 여수 세계대회에서 취임한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봉사가 있다면? 또 국내외 진행 중인 봉사활동은?

▲와이즈멘은 사회 참여형 봉사활동이다. 사회적 아픔을 치유하고, 대두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봉사활동이다. 대표적으로 의료인 회원들로 구성된 와이즈멘닥터스가 있다. 이들은 아프리카를 비롯해 저개발국에서 해외 의료봉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볼백말라리아’라는 국제프로젝트를 통해 UN과 함께 아프리카 등에서 말라리아 퇴치 활동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

—동티모르에 와이즈멘 청소년센터를 건립했다고 들었다.



1981년 은사 권유로 와이즈멘 활동 시작

국제와이즈멘은 73개국 활동하는 봉사단체

UN 비정부기구 등록돼 있어

2006년 동티모르에 커뮤니티센터 지어줘

여수대회 3000명 참석 국제교류 친선 한마당

청소년대회 동시 열려 한류문화 확산 기여

▲한국남부지구 총재였던 2006년 한국YMCA와 함께 동티모르에 ‘와이즈멘 커뮤니티센터’를 지어줬다. 당시 동티모르는 오랜 내전을 겪고 독립한 지 얼마되지 않은 때였다. 주민들은 피폐한 생활을 했고, 어린이들은 더욱 고통에 시달렸다.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무척 안타까웠다. 저도 어려웠던 성장기를 홀로 극복하며 생활했던 터라 더욱

애절했던 것 같다.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동티모르 발전을 위해 청소년 교육을 통한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센터 개관때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 또한 마음이 뭉클했다.

또 여수 세계대회 기념 사업의 하나로 여러 회원들과 함께 라오스에 ‘청소년 프로그램 센터’를 건립, 최근 개관했다. 이런 일들은 어려웠던 저의 청소년 시절이 계기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국제총재로서의 추진할 정책으로 청소년에 관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

—여수 세계대회는 어떤 행사인가?

▲와이즈멘 세계대회는 국제친선과 교류, 봉사활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수행해온 봉사활동을 격려하고, 친교와 우정을 나누면서, 와이즈멘 정신과 지식을 공유하는, 그야말로 국제교류의 친선 한마당이다.

제73차 국제와이즈멘 세계대회는 여수에서 열린다. 세계 73개 국가에서 와이즈멘 회원을 대표해 30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세계대회는 대회를 개최하는 나라의 각종 문화와 전통뿐만 아니라 개최국 와이즈멘 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 세계대회는 여수시와 전남도를 전 세계에 홍보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여수 세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가져올 기대효과는?

▲여수 세계대회는 직·간접적으로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대회만 개최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대회, 국제대회도 연달아 열린다. 각종 부대행사까지 합치면 전체 행사는 10일간 치러진다. 이 기간 동안 세계 73개국 대표들이 여수를 방문하기 때문에 여수와 전남 관광지를 알리는데 절호의 기회다. 이는 여수박람회장 활성화와 전남 마이스(MICE) 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국제청소년대회를 동시 개최하기 때문에 청소년 교류와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여수와 전남,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는다면, 장래 외교무대에서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세계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대회 유치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안다.

▲세계대회 유치는 여수보다는 대전이 훨씬 적극적이었다. 준비도 훨씬 많이 했다. 다만, 우리도 이제 국제총재를 배출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 대상자가 초대 한국총재를 역임했던 저로 모아졌다. 자연히 결론을 막 끝에 총재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논리가 전개되면서 최종 투표 결과, 1표 차로 여수로 결정됐다.

해외 경쟁도 치열했다. 유럽·남미·한국 3표전이였다. 외교전이 벌어졌다. 2020년 유럽 개최를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어렵게 유럽·남미를 설득해 만장일치로 한국 여수가 확정됐다. 최종 발표장에서 ‘코리아, 여수’가 호명되자 대표단 모두가 일사단결 기쁨을 나타냈다.

—여수지역에서 건설한 중견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평소 경영철학은?

▲여수지역에서 ㈜대광솔루션과 ㈜유니온산업 등 건설한 중견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봉사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고,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개선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는 인간의 기본적인 행위다. 경영도 회사를 운영하는 매카니즘의 하나로, 유행형의 재원을 가공해 생산·판매·유통하는 과정을 통해 회사와 직원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봉사와 경영의 근본 목적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민과 회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봉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실천 행동이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봉사하는 일은 오히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 국제와이즈멘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김창희 기자 chkim@kwangju.co.kr

문상봉 국제총재는 누구

노점상서 중견기업 성장 신화 이끌어
한국총재 이어 36년만에 국제총재



문상봉 국제와이즈멘 국제총재는 여수 출신이다. 11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 평생을 여수에서 생활하고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중퇴와 편입, 야간 고교, 야간 대학을 졸업했다. 중학생때 급사로, 고등학생때 사원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했다. 고교 졸업 후 잠시 직장생활을 하다가 25세에 사업을 시작했다. 부산 국제시장에서 휘귀한 반병을 구입해 서정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노점상이었다.

그는 현재 국가산단 기업체의 불류지원시스템·자동화설비·환경산업설비 등 맞춤형 기획·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맞춤형 토털 솔루션 기업 ㈜대광솔루션과 용역 회사 ㈜유니온산업, 서비스업체 ㈜다케이엠즈를 경영하고 있다.

그는 직원들에게 “상품을 팔지 말고 인격을 팔아라”고 강조한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신뢰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이다. 이는 “작은 것일수록 소홀하지 말라”는 주문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그는 직원을 제1 고객으로 떠받든다. 직원은 내부 고객인 까닭이다.

문 총재는 사업 시작 2년째 되던 해, 고교 은사의 권유로 국제와이즈멘 여수한려클럽 창립 멤버가 되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남부지구 총재, 한국 총재에 이어 36년만에 국제 총재에 올랐다.

약력

- 여수상고, 광주대 경영학과, 한양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국제와이즈멘 여수한려클럽 회장
- 국제와이즈멘 한국남부지구(전남·광주·제주) 총재
-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초대 총재
- 여수경영인협회 초대·2대 회장
- 여수상공회의소 부회장
- 여수 YMCA 이사
- 여수인재육성장학회 이사
- ㈜대광솔루션·㈜유니온산업·㈜다케이엠즈 대표이사

밝은광주안과의 새 이름

신세계안과

SHINSEGAE

스마일 / 라식 / 라섹
노안 / 백내장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